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가 초등학교 어린이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우리나라 사고사망 분포의 특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고발생 수준이 성인기 이후 인구집단의 사고발생 수준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인데,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세 미만 연령층의 사고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지도 및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 7개 대도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생활안전행동과 관련된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 정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행동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방향 모색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7개 대도시 지역(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총 14개 초등학교 5학년 501명과 6학년 학생 532명의 총 1,03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대상학교 및 대상자 선정은 단계별 계통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별로 단계적으로 무작위추출을 하였으며 마지막 조사학급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계통추출을 사용하여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원을 본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들 중, 32.3%가 지난 1년간 병원에 1회 이상 방문할 정도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부딪힘, 넘어짐, 베임’과 같은 종류의 사고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사고는 약 50% 이상이 학교시설 및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팔이나 다리 등의 사지를 다치는 사고가 60% 이상이었다. 학교와 가정에서 받았던 안전지도나 교육에 대해서 가정에서의 안전지도 경험(93.2%)이 학교에서 받았던 안전지도나 교육 경험(8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 중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받은 경우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으며(46.7%) 많은 경우 특별한 학교행사나 조회 및 종례의 짧고 불규칙적인 시간에 경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본인과 부모의 관심도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서 66%를 나타낸 교사의 안

전 관심도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열기구를 만질 때의 감전예방 행동, 가스사용 시 올바른 벨브사용,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의 올바른 응급처치, 교차로에서의 안전한 횡단 등에 대한 실천정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실내에서의 비상문의 위치 확인, 자전거 주행시 헬멧 착용, 복도와 회전로에서의 부딪힘 주의에 대한 안전행동 실천점수는 상대적으로 그 실천율이 낮았다.

다단계 종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평소 자녀에 대한 안전지도가 학생의 안전행동 실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은 10.04%였다. 그 다음이 학생의 안전 관심도와 교사의 안전 관심도였으며 각각의 영향력은 약 5%와 3%였는데,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안전행동 실천정도도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생, 부모, 교사의 안전 관심도 모두가 학생의 안전행동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부모가 평소 안전지도를 많이 할수록, 학생의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사고경험이 없으며, 부모의 안전 관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의 안전행동 실천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강화방안이 제안되는데, 우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활성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학부모와 교사의 안전 관심도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행동을 실천하는데 주요한 설명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들을 대상의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담임교사들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차원에서의 교육적, 물리적 환경개선이 강화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사고는 대부분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며 부주의나 실수로 오는 타박상이나 절상이 많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의식 부재 및 지식부족으로 오는 부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내 여러 장소들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환경요인 때문이기도 하므로 학생 안전을 도모하는 교육환경 강화와 함께 위험한 환경요인 개선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